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의회 모입니다. (예,결산 심의 결정)
3. 오늘 오후예배는 신일비전헌신예배로 드립니다.
4.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연습2시, 소망관)
5. 1월 9일(금) 오후 7시에 연합목장예배로 모입니다.
6. 연합목장예배후 8시부터 남·녀연합전도회 주최로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사랑관).
7. 식사대접하실 성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강현선, 김경래, 박병진, 배사범, 성월웅, 유태환
- 식사대접 : 김동현, 신연숙집사 아버님의 장례에 베푸신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4.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선교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4여전도회	여15, 16목장	제5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1월 행사

- 1일 : 당회원 부부 신년기도회 • 4일 : 신년주일, 신일비전헌신예배, 공동의회(예,결산 심의 결정)
- 9일 : 목장연합예배(오후 8시, 본당) • 11일 : 각 기관 월례회
- 18일 : 2015년 직분자 헌신예배(제직세미나) • 19-26일 : 캄보디아 단기 의료선교 • 25일 : 정기당회

◆ 1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곽복님, 정영주

◆ 1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소재역, 이진석, 주정주, 하문숙

새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박관순	여6목장		대덕구 계족로517번길 40	010-8416-6311	3여전도회

주일낮예배

신년주일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최 영 준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14장(구30장)
새264장(구198장)
주께 가오니

기 도..... 1부/원용국 장로
2부/김명권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고린도후서 5:13~21(신 P290)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새로운 피조물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436장(구493장)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박권용 장로
2부 / 김제곤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신일비전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박순국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시편 67:1~7(구 P848)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찬 양... 새503장(구373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조성철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284장(구206장)..... 다같이

기 도..... 박경숙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요한계시록 21:1~7(신 P420)

말씀선포..... 설교자

새롭게 하노라

목장찬양..... 여 13, 14 목장

축 도..... 인도자

기도회

✚ 다음주 찬양 / 여 15, 16 목장

✚ 다음주 기도 / 이정자 권사

Since. 1978

No 1. 2015. 1. 4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영준
강 도 사 정기훈
전 도 사 김금분
장 로 김제곤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숙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김신혜 윤현덕
주 반 김빛나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조성일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대합니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배시간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시	본 당
	수요기도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사 랑 관
제자교육	새벽기도회	새벽 6시	사 랑 관
	심야기도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요전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보기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주일학교	목장성경공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유치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년말투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은, 국내선교부/남우수,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르라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벨엘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 이성은, 김지호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보라, 강혜성(김성원), 객은태(윤순녀), 김건국(김성욱), 김경래(전선녀), 김숙현, 남동균(윤현덕), 박권용(박복남), 박영혜, 박희나, 안재경(정은숙), 엄기준(성영욱), 오세국(허문숙), 오승엽(김영희), 우성환(정혜민), 원덕목(김재욱), 원웅국(김복국), 이상균(김상희), 이성순, 이수영(권월성), 이영일(홍은미), 이은하, 정승환(정옥자), 정이덕(한상운)

✦ 감사헌금

객은태(윤순녀), 김금분, 김명권(정영주), 김영순A, 김재홍(한영자), 김재근(한영선),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혜, 박은정, 박혜진, 성형건(윤송희), 소재역(김미화), 심희숙, 안재경(정은숙), 안주모(조양순), 엄기준(성영욱), 오승엽(김영희), 윤선옥(윤순자), 윤성욱(김신혜), 이민지, 이상균(김상희), 이성순, 이수영(권월성), 정옥근(이경미), 정태수(김정희), 함두수(박정자), 무

✦ 선교헌금

남동균(윤현덕), 박영혜, 박혜진, 안주모(조양순), 엄기준(성영욱), 원웅국(김복국), 이상균(김상희), 이수영(권월성), 정옥근(이경미), 정이덕(한상운), 최영준(한은정)

✦ 신년감사헌금

안주모 외 77명

✦ 성탄감사헌금

엄기준(성영욱)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 김건국(성욱/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박유연, 안스디지인,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이태곤(엄경지),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라희), 정은숙(소은/진형/진성),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강춘자, 박영혜, 엄기준(성영욱), 이상균(김상희)

✦ 목적헌금

김종남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목장현황

2015.1.1.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 초원	1	김종남					여3 초원	5	김채욱				
	2	강일창						6	고속자				
남2 초원	3	김재근					여4 초원	7	곽복남				
	4	김명권						8	성영욱				
남3 초원	5	남동균					여5 초원	9	구남량				
	6	안재경						10	정혜민				
남4 초원	7	오승엽					여6 초원	11	함현숙				
	8	소재역						12	김복국				
남5 초원	9	이진석					여7 초원	13	정옥자				
	10	이인호						14	이경미				
여2 초원(실버)	1	김명자					여8 초원	15	신윤경				
	2	김명숙						16	김춘복				
여2 초원(실버)	3	권월성					여9 초원	17	김혜정				
	4	정채순						18	엄경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5:13~21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새롭고 고치는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집에 살고 새옷을 입었다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1.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닌 "그리스도 안(In Christ)"에서란 조건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 1) 그리스도 안에서서란 말은 믿음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심으로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2) 그리스도 안에서서란 말은 성령의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시리라."(슌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 3) 그리스도 안에서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틸리히의 책 중에 "새로운 존재(The New Being)" 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 안에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고린도후서 5:17절을 본문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가 모두 용서받고,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2.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 당하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이란 말은 꼼짝달랴 못하도록 붙잡아버린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거기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14절b) :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서로를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부모를 위해 죽는 자식은 거의 드물고, 자신을 위해 죽는 부모도 찾는 것이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식도 아닌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다니-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사건 중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그 분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이해할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유, 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15절) :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미쳐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완성된 아름다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물에 담기도 하시고, 우리를 밝기도 하시며, 우리가 정신을 못지랄 정도로 빨리 돌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칼과 같은 시험으로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뜨거운 가마불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로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토기는, 그리고 특별한 가마의 뜨거운 불을 거치지 않은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토기 무늬가 탈취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불은 우리의 삶의 무늬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이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룰답게, 선하고 의롭게 빛나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를 빛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든 그 손으로 악한 그릇, 불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은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4. 새로운 피조물은 화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화해의 직책을 받았습다. 본문 18-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양자 사이에 분리되었고, 멀어졌으며 원수된 관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보를 이루어서 화목케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화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큰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 뿐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화목해야 합니다.